

배포 2024. 5. 31.(금) 15:0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6. 2.(일) 09:00

(지면) 2024. 6. 3.(월) 조간

휴스(HUSS) 신규 선정 결과 발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에 3년간 90억 원 지원

- 2024년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분야 신규 연합체 3개 선정
-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학사제도 개편 등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신규 연합체(대학) 선정 결과를 5월 31일(금)에 발표한다.

※ HUSS :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 2023년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5개 대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소주제 설정

※ (예시) 대주제: 글로벌·문화 / 소주제: 케이(K)-콘텐츠와 글로벌 한국 / 추진내용: 정규교육과정 개설(글로벌 케이(K)-컬처 101 등), 연합체 내 통합적 학사운영 등

2024년에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3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3개 분야 총 19개 연합체가 신청하였다. 이후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를 거쳐 3개 연합체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관 대학	참여 대학
지역	전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동국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림대학교
사회구조	서강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원광대학교
글로벌·공생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선문대학교, 영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신규 선정된 연합체는 기존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은 학생들이 지식과 경험을 확장하고, 자신의 전공에 상관 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총 예산 240억 원 / 8개 연합체(기존 5개, 신규 3개) 지원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폭 넓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신규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개요
2.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참여대학 현황

담당 부서 <총괄>	인재정책기획관실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진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조윤주 (044-203-6883)
담당 기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책임자	팀 장	김우영 (042-869-6401)
		담당자	팀 원	강서영 (044-869-6406)

□ 사업 개요

- (사업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 : 대학 안팎의 협력·공유 시스템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최고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의 사업 영문명

사업 추진경과

- ❖ 2023. 4. 11.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 2023. 6. 30. : 2023년 선정결과(5개 컨소시엄) 발표
- ❖ 2023. 8. 29.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출범식 개최
- ❖ 2023. 12. 26. ~ 28. : HUSS 융합캠프 및 사업단 성과포럼 개최
- ❖ 2024. 3. 5. : 2024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 2024. 4. 15. ~ 19. : 사업 1차년도 추진실적 연차점검 실시

- (대상)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예산) '24년 기준, 총 240억 원(사업관리운영비 10억 원 포함)
 - (지원규모) 8개 컨소시엄(기존 5개, '24년 신규 3개 선정)
 - (지원분야) ①디지털, ②환경, ③위험사회, ④인구구조, ⑤글로벌·문화, ⑥지역, ⑦사회구조, ⑧글로벌·공생 / 대주제 별 1개 컨소시엄 지원
- ※ 국내·외 문헌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 부합도·사회적 관심도 높은 분야 선정

□ 주요 추진과제

- (융합교육) 인문사회 중심의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 교과목, 비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
- (대학 간 협력) 대학 간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효과적 융합교육체제 구축
- (성과 확산) 사업성과 고도화 및 후발대학 양성을 위해 성과포럼, 우수 교과목의 온·오프라인 공개 등 성과 공유·확산 적극 추진

□ 2023년 주요 성과

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 인문사회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 교과목 개발·운영

* (정규 교과목) 개발 181건, 운영 163건(이수학생 수 7,319명, 만족도 4.5점/5점)

사례 : 글로벌 K-컬처 101



< 글로벌·문화 컨소시엄 >

- ▶ 전공에 상관없이 글로벌 K-컬처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에 필요한 실천적 정보 제공
- ▶ 마이크로러닝(25분 내외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 중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30개 강의를 선택·수강하면 2학점 인정
- ▶ 컨소시엄 내 통합적 학사 운영 및 집중이수제 실시

- 학생들이 경험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

*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189건, 운영 226건(참여학생 수 8,420명, 만족도 4.47점/5점)

사례 : 인문+기술 융합프로젝트



< 위험사회 컨소시엄 >

- ▶ '2024 KPMG 아이디어톤' 공모전 우승 : 인문사회+공학 계열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정보격차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해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뉴스 통합 서비스 Bunch 개발
- ▶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턴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이후 사업단에서 관련 취업·진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

② 대학 간 융합·협력 기반 구축

- 대학 내(학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인적 자원 공유를 위해 필요한 대학 본부 수준의 학사제도 개편 추진

사례 : 대학 간 교류협약 체결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교수·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협약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제정과 대응을 위한인재양성 컨소시엄의 주원대학인 서울대학교와 참여대학인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는 교수·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협정 도모를 위한 본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제정과 대응을 위한인재양성 컨소시엄" 및 교수 교류와 학생의 학점교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책임자) (1)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제정과 대응을 위한인재양성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를 겸한다.

(2) "학점교류 위원회"는 본 협약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내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3) "교수 교류"는 학점교류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말한다.

제3조(학점교류) 이 협약은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협약당사자 대학은 제2조 및 제3조(학점교류)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내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학점교류) 이 협약은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협약당사자 대학은 제2조 및 제3조(학점교류)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내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학점교류) 이 협약은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협약당사자 대학은 제2조 및 제3조(학점교류)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내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6조(학점교류) 이 협약은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협약당사자 대학은 제2조 및 제3조(학점교류)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내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 인구구조 컨소시엄 >

- ▶ 학점 교류 및 교수·연구인력 간 상호교류, 공동 운영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교육 인프라의 상호 이용 등을 위해 컨소시엄 참여대학 총장 간 협약 체결('23.11월)
- ▶ 학사제도 개선, 대학 간 교류확대 및 협력 도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을 위한 물리적 기반 마련

사례 : 통합LMS 구축



< 글로벌·문화 컨소시엄 >

- ▶ 참여대학 간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점인정 운영체제 및 지능형 통합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 ▶ '수강책가방'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수강신청 및 진로 탐색, 교수자의 출석 및 수업관리 등 편의 제공

③ 사업성과 공유·확산

- 해커톤 대회*, 우수강좌 교류 등 인문사회 융합인재가 한 자리에 모여 창의적 융합사고를 할 수 있는 캠프형 교육(HUSS 융합캠프) 실시

* 집중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경진대회

< HUSS 융합캠프('23.12.26.~'23.12.28.) >

			
HUSS 해커톤	HUSS 아카데미	사업단 성과포럼	홍보 포스터

- 지자체·산업체와의 협력, 성과포럼 개최, 사업 홈페이지(hussnet.com) 구축 및 우수 교육콘텐츠 공개 등을 통해 융합·협력 성과 확산 추진

사례 : 'AI시대의 공감'(시민강좌)



< 디지털 컨소시엄 >

- ▶ 고려대, 성북구청, 성북문화원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 시대 인간적인 공감의 의미에 대해 문학, 심리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획 강연 운영
- ▶ 총 5회, 시민 350여 명이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확대할 예정

□ 기존 연합체(5개, 2023년~)

대주제	연합체(컨소시엄)		권역비율	
	주관대학	참여대학 ※ 밑줄 : 전문대학	수도권	지방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규범	고려대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	40%	60%
기후 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국민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60%	40%
위험 사회에 대한 국가 전략 모색	선문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한밭대	20%	80%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생활세계의 대응	성균관대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	40%	60%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단국대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	40%	60%

□ 신규 연합체(3개, 2024년~)

대주제	연합체(컨소시엄)		권역비율	
	주관대학	참여대학	수도권	지방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가치 창출	전주대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20%	80%
공동체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구조 변화 대응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원광대	60%	40%
인류와 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공생	광운대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	40%	60%